

제목 Theme: 씨뿌리는 비유 Gospel Seeds

본문 Scriptures: 마태복음 13:1-9절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That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was sitting by the sea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And large crowds gathered to Him, so He got into a boat and sat down, and the whole crowd was standing on the beach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And He spoke many things to them in parables, saying, "Behold, the sower went out to sow;

4.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and as he sowed, some seeds fell beside the road, and the birds came and ate them up.

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Others fell on the rocky places, where they did not have much soil; and immediately they sprang up, because they had no depth of soil.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But when the sun had risen, they were scorched; and because they had no root, they withered away

7.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Others fell among the thorns, and the thorns came up and choked them out

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And others fell on the good soil and yielded a crop,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의미는 복음의 필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복음의 필드에서 만나 부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 들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배에 올라타 적당한 거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씨뿌리는 자와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머리로 들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복음인 것입니다(로마서 10:10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4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흙이 얇은 곳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 금방 싹을 내는 것 같으나 새들이 먹어 버렸고, 흙이 얇은 곳은 햇볕에 말라 죽었고, 가시밭은 가시나무들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좋은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길가에 새들은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고, 흙이 얇은 곳에 햇살은 믿음이 없으므로 사라져 버렸고, 가시밭에 가시들은 복음에 대한 환란과 핍박에 못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령의 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령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